

축산을 생각케 하는 속담



김 치 영

한국사료협회

1. 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라

경제학에 입문하면 가장 처음 접하는 것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는 것이다. 이같은 경제논리를 가장 적절하게 이용한 구매행위가 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라는 속담일 것이다. 겨울철 비수기에 밀짚모자를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일 테니까 나온 말이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한여름철에 밀짚모자를 사려고만 든다.

내가 축산과 인접한 사료산업에 몸담고 있다보니 간혹 축산에 관심있는 친구로부터 앞으로의 축산전망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곤 한다. 금년 여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양돈을 해보고 싶다는 친구로부터 앞으로의 양돈사업의 전망에 대한 조언을 부탁받았다.

나는 이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를 들어 「양돈사업 불가론」을 전개했다. 첫째, 모름지기 어떤 사업이든 가장 값싼 때 구매하여 값비쌀때 파는 것이 되어야 할텐데, 이미 확실한 것은 가장 값싼 구매시기는 놓쳤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양돈전망도 지금보다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라는 경제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두번째, 어느 업종이든 불황의 초기적 징후는 그 업종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개입함을 본다. 공무원하든 아저씨가 닭을 키운다고 할 때 우리는 육계과동을 보았고, 다방으로 출근하는 비육우업자가 늘어나면서 대가축 수난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현재의 생업에 충실할 것을 조언한 나에게 친구는 과히 유쾌하지 못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지금쯤, 아니면 내년

에나 가야 내말이 옳았음을 수궁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두고두고 돈벌 수 있는 호기를 놓치게 했다고 나를 원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여름철 밀짚모자가 품귀 현상을 보일 때 밀짚모자를 구하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증권시장이 달아오를 때면 수백, 수천억이 몰렸다가도, 장세가 식게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썰물 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돈을 쫓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아무래도 인간의 심성은 남이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는데 있기 때문일까.

나는 지금도 축산을 하고자하는 사람에게 “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라”고 권하고있다. 이같은 나의 논리가 맞지 않는 날이 바로 우리 축산이 바로 서는 날이라고 믿으면서...

2. 갠날 지붕을 고쳐야 한다.

세계적인 투기꾼들이 다 모여 있는 미국의 시카고 곡물시장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의 엄지손가락을 가르키며 “Law of thumb”라 답했다한다. 그의 말인즉 오랜 경험과 직감을 통해 가르켜지는 엄지손가락의 방향에 따랐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인 루우즈벨트 같은 이도 “내가 70%의 확률을 가지고 올바른 예측을 할 수만 있다면 증권시장에 나가겠다”고 가장 솔직한 고백을 하지 않았던가?

이처럼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인듯 싶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계량모델을 동원한다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듯 싶다. 이때문에 인간들은 예측해서 오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버려낼 수단을 강구해왔고, 이같은 예측과 시행착오속에서 역사발전이 진행돼왔다.

우리 가축들의 먹이를 공급하는 사료곡물시장만 국한해보더라도 과거에는 주로 시장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수급상의 변수만 가지고 가격변화를 예측했는데 반해, 지금은 막대도표(Bar Chart), 점수도표(Poing & Figure Charts), 이동평균도표(Moving Average Chart) 등 도표의 움직임만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투기꾼이 있는가 하면, 첨단과학의 총아인 컴퓨터가 동원되는 것은 예사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측은 동전던지기와 마찬가지로 동전 뒷면을 보게되는 쪽은 50%를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로 표현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말그대로 제대로 예측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이 되고만다. 불과 몇해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원유시세가 이렇게까지 급락하리라고 예상했었고, 또 75불짜리 옥수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었던가.

이때문에 예기치 못했던 일이 엄연히 현실로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우리앞에 닥친 현실에 무기력해지고 만다. 특히 지금같이 곡가와 원유가처럼 시세가 바닥까지 들어내 보이게 되면 더욱 그러하다. 과거 그렇게 연성높여 부르짖던 자원내이션, 네티즘과 식량안보론, 자원무기화 등이 자취를 감추고, 그렇게 말하는 쪽이 또다시 소수가 되고 만다.

그러나 세상지사란 제로섬게임(Zero Sum game)이어서 양과음이 있듯 손과실이 있고, 웃는자가 있으면 우는자가 있으니,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저곡가시대를 향유하는 때에 저곡가로 시름하는 수출국의 고민을 왜 모르는가?

지금쯤 Law of thumb를 신봉하는 많은 이들이 이제 서서히 그들의 엄지손가락을 하늘로 쳐들고 있는 것을.....

젊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